



임부의 행복에 대한 개념분석

조은미¹ · 유혜라²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¹,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학연구소²

Happiness among Pregnant Women: A Concept Analysis

Jo, Eun Mi¹ · Yoo, Hyera²¹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Nursing, Ajou University, Suwon²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Suw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cept of happiness among pregnant women. **Methods:** Walker and Avant's method for concept analysis was used. **Results:** The defining attributes of happiness among pregnant women were 1) period of pregnancy, 2) emotional dimension (positive affect), and 3) cognitive dimension (existence need-satisfaction, relatedness need-satisfaction, growth need-satisfaction). The antecedents of happiness among pregnant women were 1) intrapersonal characteristics, 2) reproductive history and related characteristics, 3)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4) external factors. The consequences included 1) pregnant women's well-being, 2) fetal well-being, 3) maternal well-being, and 4) child's happiness. **Conclusion:** Although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refine the diverse attributes of the concep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explaining happiness among pregnant women.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adequate interventions to increase prenatal happiness is needed.

Key Words: Pregnant women, Happiness, Concept analysi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신은 여성의 생애발달 주기 상 개인적 삶에서 모성으로 이행(transition)하는 과정으로서 임신 기간에 여성은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1]. 임부는 임신에 대한 행복, 불안, 우울, 양가감정 등의 복합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2], 임부의 정서 상태는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발달과 아동의 출생 후 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

임부의 행복은 임신 기간 중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산후

우울을 경감시키며 산후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또한, 임부의 행복이 높으면 태교실천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반면에 임신 시 행복 정도가 낮으면 저체중아, 태아 성장발달 지연 등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출산 후 산모에게 신경 행동적 문제를 유발하며[7,8], 부적절한 양육을 초래하여 아동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와 같이 임부의 행복은 여성 개인만이 아닌 태아 성장과 출산 후 양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임부의 행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 Allan 등[10]이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주산기 안녕(perinatal well-being)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를 하였는데, 주산기 안녕을

주요어: 임부, 행복, 개념분석

Corresponding author: Yoo, Hyera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164 World cup-ro, Yeongtong-gu, Suwon 443-380, Korea.
Tel: +82-31-219-7015, Fax: +82-31-219-7020, E-mail: hryoo@ajou.ac.kr

Received: Feb 25, 2016 / Revised: Jul 25, 2016 / Accepted: Aug 31,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나타내는 지표로 긍정적 감정, 삶의 만족, 미래에 대한 기대감, 자존감, 삶의 질, 가족의 기능, 지각된 건강 수준이 있음을 밝혔다. 국내의 경우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행복 개념에 관한 분석연구는 없으나 20대부터 60대까지의 여성 656명을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대 간 분석한 연구 [11]가 있었고,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 개발을 한 연구[12]에서는 행복 구성요인으로 가족관계, 삶의 여유와 자부심, 심신의 건강, 자립과 성장, 영성, 대인관계, 외모, 사회·문화·환경의 8개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임부의 정서와 관련된 연구 영역은 대부분이 임부의 우울이나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것이고, 임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의 개념을 밝히는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임부의 행복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하여, 임부 행복의 속성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임부의 행복 측정도구 개발과 임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부 행복의 개념을 정리하고 속성을 규명하여 임부의 행복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13]의 방법을 적용하여 임부의 행복에 대한 개념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방법은 임부의 행복 개념이 기존 문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정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개념의 속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은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1990년 이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논문 검색은 국내 주요 학술연구논문 검색엔진인 한국교육학술원(www.riss4u.co.kr), 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 (NDSL)를 이용하였고, 국외 연구 검색을 위해서는 PubMed, NDSL을 이용하였다. 논문 검색에 사용된 주요 핵심 단어는 국내 연구 검색 시에는 ‘임부/임신/임신부’와 ‘행복/주관적 안녕감’의 조합이었으며, 국외 연구 검색 시에는

‘pregnant/antenatal/pregnancy’와 ‘happiness/subjective well-being’의 조합이었다. 인터넷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은 논문들을 찾기 위하여 주제와 관련된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에 의하여 관련된 논문 자료를 직접 검토하여 검색하는 과정을 병행하였다. 임부의 행복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많지 않은 상황으로서, 제목에 임부와 행복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기에 수작업으로 검색한 문헌은 주요 내용이 임부의 정서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 안에 행복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색된 논문은 총 368건이었다. 이 가운데 제목과 초록에서 임부의 행복에 관한 본질적 의미 탐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논문, 청소년 미혼모나 성폭력, 약물 중독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 등의 특정 대상군을 연구한 논문, 중복논문 등을 제외하고 26편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모든 연구논문은 원문을 확보하였다. 미혼모 등의 특정 대상군을 연구한 논문을 제외한 이유는 임신 이외의 다른 문제적 상황에 처해있는 대상자의 경우 보편적인 임부의 행복 개념을 파악하는 데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 행복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대표적인 학자인 Diener[14], Veenhoven[15] 등의 책자와 연구 문헌을 참고로 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Walker와 Avant[13]의 8단계 개념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하였다.

- 개념을 선정한다.
- 개념분석의 목적을 결정한다.
- 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한다.
- 개념의 속성을 확인한다.
- 개념의 모델사례를 제시한다.
- 개념의 추가사례를 제시한다.: 반대사례, 경계사례, 관련 사례를 제시한다.
- 개념에 대한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 개념의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연구결과

1. 개념 선정

Walker와 Avant[13]는 연구자가 평소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에서 실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평소에 혼란을 주었던 개념을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관심 영역이나 주제를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고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개념을 선택하라고 하였다[16].

임신은 새 생명의 탄생과 연관 지어 축복, 기쁜 일로 여겨진다. 그런데 임신 기간의 정신적 안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임부의 산전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왔다. 부정적 정서가 없는 것이 곧 긍정적 정서가 아니며 서로 독립된 영역이기에[14], 임부의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임부의 행복을 이해하는 데에 부분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임부의 행복은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임부의 행복을 개념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개념분석의 목적

Walker와 Avant[13]에 의하면 개념분석의 목적은 개념의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사용하는 언어와 같은 개념이지만 학문적으로 사용될 때의 구별, 기존하는 개념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 조작적 정의의 개발, 기존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16].

본 연구에서 개념분석의 목적은 임부의 행복 개념의 명확한 속성 및 선행요인과 결과 등을 파악하여, 임부의 행복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함이다.

3. 개념의 사용범위 확인

Walker와 Avant[13]는 개념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선입견이 개입될 수도 있으므로 간호나 의학 관련 문헌으로만 제한해서 검색해서는 안 되며, 이 같은 광범위한 문헌고찰은 개념의 속성에 대한 최종 선택을 지지하거나 타당화를 도와준다고 하였다[16]. 이에 따라 사전, 보고서, 동료, 활용 가능한 문헌들을 이용하여 분석하려고 하는 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 사전적 정의

‘임부’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17]에서 임신부와 동의어로서 ‘아이를 밴 여자’로 설명되고 있다. 한자어로는 임신할 임(妊), 여자 부(婦)로서 임신한 부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행복’이라는 용어는 한자로는 다행 행(幸)자와 복 복(福)자로 표기되며, 영어로는 ‘happiness’, ‘well-being’, ‘eud (a)emonia’, ‘blessedness’, ‘sunshine’으로 표현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17]에서 행복(幸福, happiness)은 ① 복된 좋은 운수, 행우(幸祐)와 비슷한 말, ②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예문으로는 ‘행복을 느끼다’, ‘행복을 누리다’, ‘행복한 사람’ 등이 있다. 정리하자면, 임부의 행복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임신한 여성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로 풀이된다.

2) 학문적 정의

임부의 행복에 대해 학문적으로 내려진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으나, 일반적인 ‘행복’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구분하자면 행복에 대한 정서적 정의(affective definitions), 인지적 정의(cognitive definitions), 태도적 정의(attitudinal definitions)로 살펴볼 수 있는데[15],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정의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Diener[14]는 행복이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서, 즐거운 감정이 많고 부정적인 감정은 적으며(정서적 요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지적 요인)라고 설명하였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내리고 있지만, 가장 많이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Veenhoven[15]의 정의이다[18]. Veenhoven[15]은 행복이란, 개인이 자신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질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라고 정의하면서, 정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정도(degree): 행복은 길이나 무게와 같이 많거나 적은 정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 개인(individual): 행복은 개인을 측정 단위로 한다. 국가나 집단, 사물,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 판단(judges): 개인이 자신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지적으로 구성된 개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지적 과정이 손상된 환자나 신생아 등에는 적용될 수 없다.
- 전체적인(overall): 행복에서 삶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모든 기준을 포함하여 내린 전체적인 판단을 결과로 한다.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는 정서적, 인지적 평가가 포함된다.
- 전반적인 삶(life-as-a-whole): 행복은 삶의 어떤 특정 부분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영역의 삶을 대상으로 한다.
- 자신의(his/her): 행복은 개인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 긍정적으로(favorably):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행복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임부의 행복’ 이해에서 부분적으로 중요하지만, 임부의 행복은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10].

3) 임부의 행복 개념에 영향을 준 이론

임부의 행복 개념과 관련된 이론으로는 첫째, 목적 이론과 욕구이론을 들 수 있다. 목적 이론은 목표 이론이라고도 하며, 행복을 목적이나 욕구가 충족된 상태로 설명한다. 인간의 욕구는 Alderfer[19]에 의하면 생존 욕구(existence needs), 관계 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 욕구(growth needs)의 3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고, 행복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이행 이론(transition theory)을 들 수 있다. 임부는 개인적 삶에서 모성으로 이행(transition)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이행(transition)은 간호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개념으로서 ‘어떠한 상태나 조건, 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개인에게 새로운 지식 습득과 행동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새로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아를 재정의 하도록 만든다[1]. 따라서 개인적 삶에서 어머니됨으로의 이행(transition) 과정에 있는 임부는 다른 연령층의 여성이나 다른 성인 집단과는 차이가 있는 임부만의 경험과 욕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부의 행복 개념은 임부가 갖는 욕구의 충족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모성정체성(maternal identity) 이론을 들 수 있다. 삶에서의 정체성 변화는 인간 발달에서 기본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성정체성은 여성 개인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의 정체성 변화라고 할 수 있다. Rubin[20]은 모성정체성에 대해 ‘자녀를 임신하고 양육하는 경험은 여성의 자아체계 안으로 새로운 성격 차원이 통합되는 것이며, 성공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한 통합은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실제 이미지를 정련시키고, 이러한 통합 과정은 의지적 과정이며 바람직한 특성으로 변하고 성취하려는 열망과 이상적인 것의 수행으로 동기화 된다’라고 하였다. 즉, 모성정체성은 어머니됨으로의 이행과정과 함께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긍정적 방향으로의 내면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행복은 모성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1].

한편, 일반적으로 행복에 관한 이론적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서 쾌락주의(hedonism) 관점과 삶의 만족에 관한 관점(life satisfaction view)이 있다. 쾌락주의에서는 행복을 즐거움 순간들의 합으로 설명하며, 삶의 만족에 관한 관점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 개인이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Diener[14]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모델을 제시하며, 행복은 긍정적 감정의 정도와 삶의 만족도로 구성됨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종합해보면 임부의 행복은 임부의 긍정적 감정의 정도와 임부가 갖는 욕구의 충족과 관련된 삶의 만족감이라고 볼 수 있다.

4) 타학문에서의 임부의 행복 개념사용

행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심리학인데, 한국 성인의 행복 인식 유형이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연구,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11] 등이 진행되어 왔다. Kim과 Han[22]은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연구에서 한국인의 행복 구성 요소로서 16개의 요인을 밝혀내고 이들 요인을 Alderfer[19]의 생존·관계·성장 욕구 위계이론에 따라 분류하여 행복지수 공식을 ‘행복=(2.5*생존)+(2.5*관계)+(5*성장)’으로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 생존영역에는 경제력, 사회·정치·문화·환경, 외모, 건강 요인이 포함되었고, 관계영역에는 자녀의 바른 성장, 부모 및 친지 간의 원만한 관계,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요인이 포함되었으며, 성장영역에는 자기수용감, 자기개발 및 목표 추구, 자립성, 여가, 긍정적 인생관, 사회봉사, 종교 요인이 포함되었다. 임부는 성인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임부가 처해있는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 성인의 행복 측정에서는 다룰 수 없는 임부만의 욕구 영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교육학에서는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연구[12] 등을 하였는데, Kim과 Han[22]의 연구에서 밝힌 16가지 한국인의 행복 요소를 기준으로 하면서, 물질과 긍정적 정서 요소를 포함하여 총 18가지로 어머니의 행복 요소를 구성하였다. 사회복지학에서 Park[6]은 임신부의 행복이 태교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임부의 행복을 즐거움, 만족감, 자신감, 행복감, 화목함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임부의 행복이 높으면 태교실천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 간호학에서의 임부의 행복 개념사용

임신은 어머니가 되는 이행(transition) 과정의 시작 단계이다[1]. 이행의 보편적 속성에는 개인의 정체성, 역할, 관계, 능력, 행동 양상의 변화가 포함된다. 임신기 역시 이행 과정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Lederman[23]은 임신은 새로운 자아상, 신념, 가치관, 우선순위, 행동패턴, 타인과

의 관계, 그리고 문제해결기술들에 대한 준비기라고 하였으며, 임부는 변화된 상황극복에 대한 의지력, 임신에 대한 안정감, 낙관적 생각을 통해 심리적 안녕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Lederman[23]은 임부의 심리·사회적 적응 요소로서 임부 및 태아의 안녕, 임신 수용, 모성 역할에 대한 준비, 출산 준비, 배우자의 지지, 친정어머니와의 관계, 분만에 대한 두려움의 7가지를 들었다.

임신 초기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교차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신 중기 이후에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되고 임신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24]. 초산부부의 임신 경험과 관련된 Lee[2]의 연구에서 임부는 임신에 대한 행복감, 불안, 우울, 양가감정 등의 복합 정서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외 연구로는 Jayasvasti와 Kanchanatawan[9]가 438명의 임부를 대상으로 행복의 정도와 관련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임부의 57.3%가 높은 정도의 행복감을 나타냈고, 주요한 관련 요인은 나이가 31~35세인 경우, 높은 학력, 높은 경제적 수준, 높은 결혼만족도, 대인관계 갈등이 없는 경우, 외향적이고 안정적인 개인성향, 임신으로 인한 신체상 변화에 걱정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Allan 등[10]은 주산기 안녕(perinatal well-being)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를 하였는데, 임산부의 행복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와 함께 긍정적 정서의 균형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행복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임부의 행복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인 주산기 안녕(perinatal well-being)의 개념분석 결과 주산기 안녕이란, 시간상으로는 출산 전과 후의 기간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경제적, 생태학적인 삶의 영역들을 포함하여, 인지적 또는 정서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자가평가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임부의 일상생활 중의 스트레스와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인 PES (Pregnancy Experience Scale)[25]는 41문항으로서, 문항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와 행복 정도를 모두 표시하게 하였는데, 이 도구에서 포함된 문항은 임부의 신체적 요구(충분한 수면, 신체활동 능력, 임신으로 인한 불편감 등), 외모(신체상 변화, 체중 변화 등), 사회·정치·문화환경(임신·출산정책의 혜택, 임신·출산에 대한 고용정책의 안정성), 대인관계(태아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정부모·시부모와의 관계, 다른 자녀와의 관계, 가족 외의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 외 산부인과 방문, 산후 조리 준비, 아기용품 사기, 출산 교실 참석, 사회적 지위나 네트워크의 변화 등이었다.

또한, 임신 기간은 어머니됨의 이행 과정에 속하는데, 성공적인 이행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행복이라고 하였다[1]. 그리고 여기에는 효과적인 대처, 자신의 감정관리, 삶의 질, 만족도, 성장, 자율성, 자존감, 임파워먼트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임부의 행복과 관련된 여러 문헌, 자료에서의 사용 범위를 살펴보았는데, ‘행복(happiness)’과 혼용되어 나타나는 단어로써 ‘행복감’이 있다. 행복감(幸福感)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 또는 그런 느낌으로 사전에서 풀이되고 있으며[17], 영어로는 euphoria, the sense of well-being으로 번역되고 있다. 선행연구나 여러 문헌에서 행복과 행복감을 구분 없이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히 살펴보면 국외 연구나 긍정심리학 등에서 ‘happiness’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을 해석하기에 ‘행복감’이 아닌 ‘행복’이 적합하며, 행복감은 긍정적 정서의 하나로서 행복을 이루는 구성요소라고 하였다[26].

4. 개념의 속성 확인

Walker와 Avant[13]는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개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속성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단계로서, 개념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개념의 속성은 찾을 수 있는 범위의 모든 문헌을 검토하였을 때 반복해서 나타나는 개념들의 특징이라고 하였다[16].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임부의 행복 개념의 속성은 임신 기간의 시간성, 긍정적 정서, 생존영역 만족감, 관계영역 만족감, 성장영역 만족감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신 기간의 시간성

임부의 행복은 시간상으로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출산으로 임신이 종결되는 시기까지에 해당하는 시간성을 지닌다. 이러한 임신 기간은 어머니됨의 이행과정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개인의 정체성, 역할, 관계, 능력, 행동 양상의 변화가 있는 시기라는 점이 특징적이다[1].

2) 긍정적 정서

임신 시기에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교차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임부는 임신에 대한 행복감, 불안, 우울, 양가감정 등의 복합 정서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Diener[14]에 따르면 행복의 구성요소 중 하나는 긍정적 정서인데, 이것은 긍정적 정서만을 강

조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 정서가 있을 수 있으나 긍정적 정서가 그보다 더 많은 것이라 설명하였다. 임신을 어머니됨의 이행 과정으로 볼 때, 성공적인 이행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행복에는 자신의 감정관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1]. 즉, 부정적 정서를 낮추고 긍정적 정서를 높이는 것은 임부 행복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

3) 생존·관계·성장영역의 만족감

긍정적 정서에 이어 Diener[14]가 제시한 행복의 구성 요소의 다른 하나는 인지적 영역의 만족감이다. 이것은 욕구이론에서 행복은 욕구가 만족되는 것과 관련된다고 설명한 것과도 연결된다. 그렇다면 임부의 행복을 설명하는 한 부분으로서 임부가 갖는 욕구,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만족감이 임부의 행복을 이루는 하나의 속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욕구는 Alderfer[19]에 의하면 3가지 영역인 생존, 관계, 성장의 욕구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위에서 여러 문헌에 나타난 임부의 경험들을 이 세 가지 영역에 의해 구분 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존영역 만족감에는 임부의 건강, 외모,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포함된다. 임부의 건강은 충분한 수면, 신체활동 능력, 임신으로 인한 증상의 관리 등과 관련 있으며, 외모는 신체상 변화, 체중 변화 등과 연관되고, 사회·문화·경제환경은 임신·출산정책의 혜택, 임신·출산에 대한 고용정책의 안정성과 관련된다[22,23,25].

두 번째로 관계영역의 만족감은 태아와의 상호작용, 배우자의 지지, 친정부모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포함된다. 임신은 어머니됨으로의 이행과정으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역할, 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관계 형성이 임부의 행복 속성이 된다. 모-태아 상호작용은 모-아상호작용의 초기 형태로서 태교는 임부가 태아를 인격체로 간주하여 모-태아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한 형태라고 하였으며, 태아의 반응이 느껴질 때 임부는 행복을 느낀다고 하였다[27]. 또한, 배우자의 지지와 친정부모·시부모와의 관계는 임부의 심리·사회적 적응 요소로서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22,23,25].

세 번째로 성장영역의 만족감은 임신 수용, 모성 역할 준비, 효과적인 대처, 영적 건강에 대한 만족감이 포함된다. 임신 수용과 모성 역할 준비는 Lederman[23]이 제시한 임부의 심리·사회적 적응요소 7가지에 포함되며, 효과적인 대처는 임신으로 인해 어머니가 되어가는 이행과정에서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서 제시되고 있다[1]. 한편, 삶의 위기나 미래의 불확실성, 스

트레스 상황에 처할 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영적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임부에게는 영적 건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영적 건강상태로서 나타나는 영적 안녕은 종교적 영적 안녕, 삶의 의미 탐색, 아름다움이나 진리, 정의와 같은 가치를 달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28,29].

5. 모델 사례(Model case) 개발

모델 사례는 개념에 관해 확인된 속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서 어떤 다른 개념의 속성은 포함되지 않은 사례를 의미한다[13].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5가지의 임부의 행복 속성을 근거로 한 모델 사례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현재 32세의 A씨는 임신 20주이다(임신 기간의 시간성). 결혼 후부터 늘 기다려왔던 임신이기에 매우 기뻐하고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시간 중에 임신한 지금이 가장 기쁘다고 느낀다(긍정적 정서). 산부인과 진찰 결과 임부와 태아 모두 건강하다는 사실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해 하고 있다. 임신으로 인해 체중이 늘어나고 배가 점점 나오고 있지만, 아기가 건강하게 크고 있는 표시라고 생각하며 만족해한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신출산지원 혜택 카드를 발급받아 병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고 있으며, 임신출산 관련 육아휴직을 3년 낼 수 있는 직장 제도에 만족해하고 있다(생존영역 만족감). 남편도 임신 사실에 너무나도 좋아해 주고,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어 기쁘다. 친정과 시댁에서도 임신 사실에 대해 축하해주며, 아기 소식을 반가워하고 있어 A씨는 기분이 우쭐해지고 결혼 후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든다. 20주가 되면서 아기의 반응이 태동으로 전해지면서 더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태교도 열심히 하고 있다(관계영역 만족감). 엄마 역할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출산 교실도 열심히 다니고 있으며, 엄마로서의 마음가짐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임신으로 인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졌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잘 대처해나가고 있는 자신이 대견하다고 느끼고 있다(성장영역 만족감).

6. 추가 사례(additional case) 개발

1) 반대 사례(contrary case)

반대 사례는 개념의 속성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규명된 속성과 반대되는 사례이다. 이는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의 이해를 더욱 명확하게 하도록 사용된다[13].

28세의 B씨는 며칠 전부터 속이 메스거리고 예정된 월경일이 며칠 지나도록 월경이 없다. B씨는 혹시 임신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다. B씨와 남편은 아직은 아기를 원치 않아서 좀 더 나중에 임신하기로 가족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를 찾은 B씨는 임신 7주인 것을 확인했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후에 임신하고 싶었는데, 너무 일찍 찾아온 임신 소식이 어쩔 줄을 몰라 당황스럽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도무지 자신이 없다. 또한, 최근까지 장기간 복용해 온 약이 있는데 그 약이 태아에게 주는 영향은 없는 건지 걱정이 된다.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과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런 일로 상의를 하기가 꺼려져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임부의 행복 속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상자는 임신에 대해 긍정적 감정은 전혀 없이 부정적 정서를 보이고 있으며, 생존·관계·성장영역의 만족감이 전혀 없는 반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경계 사례(borderline case)

경계 사례는 개념의 속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며, 속성의 대부분 또는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으나 지속시간이나 발생의 강도 등이 본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13].

38세인 C씨는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이다. 평소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C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임신하고 아기를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임신을 미루어 왔다. 그러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임신해야 한다는 주변의 재촉에 아기를 갖기로 가족계획을 세웠고, 며칠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7주임을 확인했다(임신 기간의 시간성). 남편과 시댁, 친정가족 모두 임신 소식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있으며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관계영역 만족감). C씨는 산부인과 검사 시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기쁘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산전 검사에서 임부와 태아 모두 건강함을 확인하였다(생존영역 만족감). C씨는 평소 완벽한 성격에 따라 아기 방도 미리 꾸며놓고 출산용품도 목록을 만들어 빠짐없이 미리 사두었다. 출산교실도 꼬박꼬박 다니면서 분만과정이나 분만 후 신생아 양육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족과 사회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가치 있는 느낌이 든다(성장영역 만족감). 그러나 C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임신을 확인했을 때의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과 우울함이 더 커지고 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 내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추진해내지 못하고 승진에서 밀리게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커지고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체중이 계속 늘어나고 몸매가 흐트러져가는 것을 겪으면서 다시 예전의 몸매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우울해지고 있다.

위의 사례는 임신 기간의 시간성, 생존영역 만족감, 관계영역 만족감, 성장영역 만족감 속성이 나타나 있지만, 임부의 긍정적 정서와 함께 양가감정으로서 부정적 정서가 커지고 있으며, 임부의 개인적인 성장 욕구에 대한 불만족, 외모에 대한 불만족 등이 있기에 임부의 행복 속성이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3) 관련 사례(related case)

관련 사례는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과 관련 있는 중요한 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는 분석하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결정적인 속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는 개념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13].

30세의 D씨는 현재 임신 12주인데 하복부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으면서 유산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2주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남편과 친정, 시부모님은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주변에서 유산의 위기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출산한 사례들을 들려주며 힘이 되어주고 있다(관계영역의 만족감). D씨도 매일 기도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위기가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성장영역의 만족감). 걱정되고 불안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종교에 의지하고 믿으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고 아기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위의 사례는 임신 기간인 시간성과 관계영역의 만족감, 성장영역의 만족감이 있지만, 유산 위험으로 인해 생존영역의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부의 행복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 방향으로의 기대감이 포함된 사례로서 임부의 행복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 개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7.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확인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들을 말하며, 결과는 그 개념이 발생한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것은 개념의 속성을 더욱 명확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13].

1) 임부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들

임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 임부의 개인적

특성으로 임부의 성격 및 자기 조절 능력, 교육 및 지적 수준, 건강상태, 나이, 종교, 임신계획, 태교효과에 대한 신념 등을 포함한다. 둘째, 산과력으로서 임신 횟수, 생존아 수, 저체중아 수, 유산횟수, 이전 임신 합병증 등이 포함된다. 셋째, 남편을 비롯한 대인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주위 사람들로 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 외부 요인으로서 임부에게 주는 다양한 스트레스, 직장 및 경제적 여력, 생활수준, 대중매체, 사회적 지지 등이 포함된다[2,30]. 요약하자면, 임부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은 임부의 개인적 요인, 산과력, 대인관계, 외부요인이 될 수 있다.

2) 임부의 행복으로 인한 결과들

임부의 행복은 임신 기간 중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산후 우울을 경감시키며 산후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반면, 행복하지 않은 임부들은 불안정한 기분, 불안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저체중아, 태아 성장발달 지연 등,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5,7,8]. 임부에게는 출산 후 신경·행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8]. 또한, 행복하지 않은 임부는 행복하지 않은 어머니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부적절한 양육을 초래하여, 아동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9]. 정리하자면, 임부 행복의 결과들은 임부의 안녕, 태아의 안녕, 출산 후 산모의 안녕, 아동의 행복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임부 행복의 속성과 선행요인 및 결과들 개념적 틀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으며, 임부 행복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임부의 행복’이란 ‘임신 기간에 개인의 삶에 대해 정서적으로 긍정적이며, 인지적으로 임부로서의 생존·관계·성장영역의 만족함이 높은 상태’이다.

8. 개념의 경험적 증거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경험적 증거는 개념의 속성이 실제 현장에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떤 개념이 있거나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실제 현상에 대한 구분이나 범주이다[13]. 확인된 경험적 증거들은 개념의 이론적 기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도구개발에 매우 유용하며, 새로운 도구의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임상실무자가 대상자에게 그 개념이 존재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관찰 가능한 현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다[16].

Veenhoven[15]은 행복에 대해 길이나 무게와 같이 많거나 적은 정도(degree)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Diener[14]는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하였다. 즉, 행복은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음을 의미하며, 불안이나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측정되어야 하는 영역임을 뜻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임부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를 정리하자면, 임부의 긍정적 정서의 정도와 임부의 만족감(생존영역, 관계영역, 성장영역)의 정도가 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13]의 개념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임부의 행복개념을 분석한 연구이며 본 연구에서 밝혀진 속성은 시간성(임신 기간), 임부의 긍정적 정서, 생존영역의 만족감(임부의 건강, 외모,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에 대한 만족감), 관계영역의 만족감(태아와의 상호작용, 배우자의 지지, 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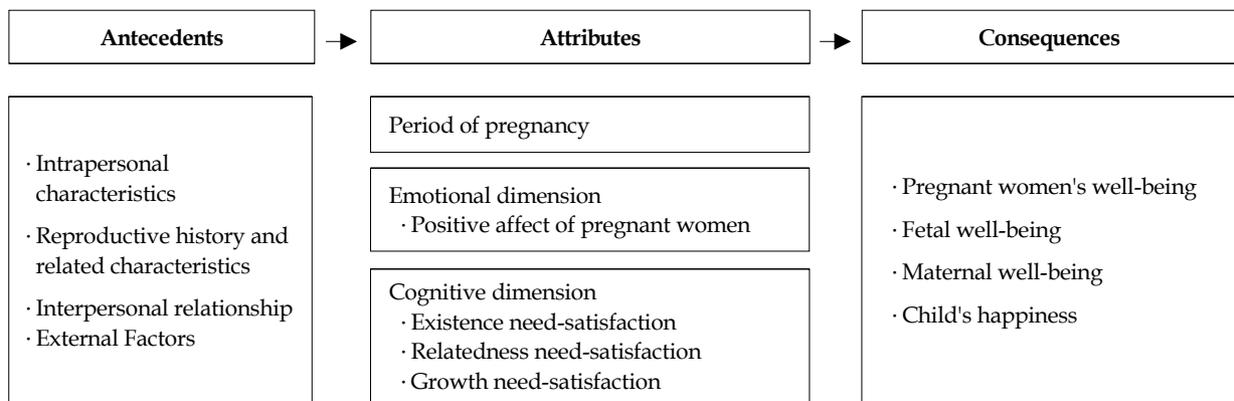


Figure 1. Attribute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happiness among pregnant women.

부모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 성장영역의 만족감(임신 수용, 모성 역할 준비, 효과적인 대처, 영적 건강)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임부 행복의 속성으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임신 기간의 시간성은 임신이 어머니됨의 정상적인 발달 이행(transition) 과정인 것과 관련 있는데, 이 시기에 임부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비롯하여 모성정체성 변화 등이 발생하는 특수한 시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성공적인 이행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행복이라고 하였다 [1]. 즉, 임부의 행복은 단순한 한 여성 개인의 단면적인 행복이 아닌 어머니가 되는 발달단계에서의 다각적 측면의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다. Allan 등[10]의 연구에서는 시간상으로 출산 전과 후의 기간 중인 주산기 안녕(perinatal well-being)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출산이라는 큰 사건의 전과 후는 여성의 요구나 경험이 달라질 수 있기에, 출산 전의 기간인 임부에게 초점을 둔 것은 본 연구의 의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정서 속성은 Diener[14], Veenhoven[15] 등의 행복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성 요소이며, 한국 성인의 행복감 구성요인[22]과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구성 요인[12] 등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긍정적 정서와 관련하여 행복 이론에서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행복은 부정적 정서가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의 빈도나 강도가 더 높은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다. 임부의 경우 양가감정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시기이므로, 임부의 행복은 임부의 부정적 감정에서 긍정적 감정까지의 역동적인 범주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10], 절대적인 긍정적 감정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적인 긍정적 감정의 정도를 속성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만족감 역시 Diener[14]와 Veenhoven[15]이 행복의 구성요소로 제시한 요소이며, 욕구이론에서 행복을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행복 구성 요소를 Alderfer[19]의 생존·관계·성장 욕구 위계이론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들이 있는데,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연구[22]에서는 생존영역에 경제력, 사회·정치·문화 환경, 외모, 건강 요인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의 임부의 생존영역 만족감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그러나 임부에게 있어서의 외모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상 변화, 체중 변화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건강 요인에서도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 증상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계영역 만족감의 경우 한국 성인의 행복지수[22] 중 관계영역에 나타난 요인과 대체로 유사하였으

나, 임부의 행복 속성에서의 관계영역 만족감에는 자녀의 바른 성장 대신 태아와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성장영역은 한국 성인에서의 자기수용감이 임부에서는 임신수용으로 표현되었고, 한국 성인의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는 모성 역할 준비로 표현되었으며, 그 외 성인의 행복 요인에는 없는 효과적 대처가 임부의 행복에는 포함되었다. 이것은 임신 기간이 어머니됨의 발달 이행과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변화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성인의 행복 요인에서 긍정적 인생관과 종교 요인은 임부의 행복에서 영적 건강으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부의 행복에 대한 개념분석을 위해 이론과 여러 분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임부 행복의 선행요인과 속성,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에 임부의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국한되었던 연구 분야에서 임부의 긍정적 정서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였는데, 임부의 행복에 대한 개념 분석을 한 본 연구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부가 속한 시기적 상황과 맥락에 따른 행복 개념을 분석하였는데, 개념분석 결과에서도 출된 임부 행복의 속성을 기준으로 임부의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립된 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임부들의 행복 정도를 계량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기존의 신체적, 질환 예방 차원의 산전관리 프로그램의 방향을 전환하여 긍정적 행복의 구체적 속성을 초점으로 하는 산전관리 프로그램 주제로 변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적으로는 산전관리의 중요성, 발전방향 및 산전관리와 관련된 학습주제에 긍정적 행복을 포함하는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존의 산전관리 방향을 합병증 예방 및 선천성 질환 예방 같은 2차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긍정적인 측면의 산모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1차 서비스로 전환하여 의료행위 및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 임부의 행복이란 '임신 기간에 개인의 삶에 대해 정서적으로 긍정적이며, 인지적으로 임부로서의 생존·관계·성장영역의 만족감이 높은 상태'라고 개념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임부 행복의 속성과 선행요인 및 결과, 경험적 준거는 개념의 이론적 기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임부의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개

발 연구와 임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 개발 연구에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나 교육적, 정책적으로 임부의 건강증진과 산전관리에 행복을 포함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문헌에 기초한 개념분석을 하였고 보편적인 임부의 행복 속성을 살펴본 것으로, 실제 임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자료에 근거한 질적 연구와 미혼모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집단 등의 다양한 상황의 임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에 대한 연구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Schumacher KL, Meleis AI. Transitions: A central concept in nursing.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994;26(2):119-127.
- Lee EH. Study on the pregnancy experience of the primiparous couple: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5. p. 1-251.
- Wee H, Park SY. The relationships between anxiety, depression, prenatal stress,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gratitud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12;16(2):274-286.
- Jung MH, Kim J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renatal emotional status, preparation for delivery, postpartum social support and postpartum blue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5;11(1):38-45.
- Kang SK, Choi JH, Chung MR. The relationships among pregnant women and their spouses' communications with their parents, marital communications, stress-coping style,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2015;16(3):529-551.
- Park HY. Effects of happiness of pregnant women on practice of parental care [master's thesis]. Seoul: Hansung University; 2015. p. 1-108.
- Austin MP. Psychosocial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pregnancy. Key aspects of antenatal care for general practice. *Australian Family Physician*. 2003;32(3):119-126.
- Sable MR, Wilkinson DS. Impact of perceived stress, major life events and pregnancy attitudes on low birth weight.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000;32(6):288-294.
- Jayasvasti K, Kanchanatawan B. Happiness and related factors in pregnant women. *Journal of the Medical Association Thailand*. 2005;88(4):S220-225.
- Allan C, Carrick-Sen D, Martin CR. What is perinatal well-being? A concept analysis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013;31(4):381-398.
- Ryu K, Rie JI. The factors of happy life among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0;24(2):89-104.
- Chung KS, Park JK, Park SH, Yoo MS, Choi ES, Seo B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aternal happiness scale for mothers with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13;51(1):27-43.
- Walker LO, Avant KC.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4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04.
-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84; 95(3):542-575.
- Veenhoven R. *Conditions of happiness*. Berlin, Heidelberg: Springer Netherlands;1984.
- Walker LO, Avant KC.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4th ed. Oh KS, Lee IS, Jo SY, translator. New Jersey: Prentice Hall; 2004.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language dictionary [Internet]. Seoul: Author ; 2015[cited 2016 April 16]. Available from: <http://stdweb2.korean.go.kr>
- Seong BH, Yoon SA. Definition of happiness and its determinants. *Journal of Brain Education*. 2010;6:103-134.
- Alderfer CP.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New York: Free Press; 1972.
- Rubin R. *Maternal identity and the maternal experienc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1984.
- Kim HW, Hwang MS, Hong KJ. Primipara's maternal identity and self confidence for caring the baby during the immediate postpartum peri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98;4(1):65-77.
- Kim MS, Han YS.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index for Korean. *Survey Research*. 2006;7(2):1-38.
- Lederman RP. *Psychosocial adaptation tin pregnancy: Assessment of seven dimensions of maternal development*.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1996.
- Kim YH. The concept analysis of motherho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98;4(2):245-257.
- Dipietro JA, Ghera MM, Costigan K, Hawkins M. Measuring the ups and downs of pregnancy stress. *Journal of Psychosomatic Obstetrics & Gynaecology*. 2004;25(3-4):189-201.
- Kim SW. Happiness and the human condition -An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happiness.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2016;44:39-67.
- Kwon MK. Antenatal depression and mother-fetal inter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07;13(4):416-426.
- Park MH.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and self-empowerment in pregn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2;8(4):494-505.
- Paloutzian RF, Ellison CW.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Peplau LA, Perlman D, editor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Chichester WS: John Wiley & Sons; 1982. p. 224-237.
30. Blake SM, Kiely M, Gard CC, El-Mohandes AA, El-Khorazaty MN. Pregnancy intentions and happiness among pregnant

black women at high risk for adverse infant health outcomes.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2007;39(4): 194-205.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Happiness among pregnant women is associated with pregnancy outcomes. However, it is an ambiguous concept as there is no universal definition to state exactly what it is.

■ **What this paper adds?**

The concept of happiness among pregnant women was analyzed. Defining attributes of pregnant women's happines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Results of this study will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a tool to adequately measure the concept of pregnant women's happiness and interventions for happiness-enhancement.